

『素問入式運氣論奧』와 『五行大義』의 五行 및 干支에 대한 解釋 比較 研究

¹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 ²嘉泉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醫學史學教室
白裕相¹ · 金度勳²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Wuxing and Ganzhi in *Suwenrushiyunqilunao* and *Wuxingdayi*

Baik You-sang¹ · Kim Do-Hoon²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Wuxing(五行) and Ganji(干支) in *Suwenrushiyunqilunao* (素問入式運氣論奧) and *Wuxingdayi*(五行大義) is reviewed to compare the interpretations of Wuxing and Ganzhi.

Methods : The explanations of Wuxing, Sipgan(十干) and Sibiji(十二支) in the chapters of *Suwenrushiyunqilunao* and *Wuxingdayi* were studied to find different points of view.

Results : *Suwenrushiyunqilunao* explained the meaning of Wuxing and Ganji using expression and metaphors of Yinyangwuxing(陰陽五行) theory while *Suwenrushiyunqilunao* describe their fragmentary characters. Also, *Suwenrushiyunqilunao* attached each one of Wuxing to substance(質), rule(理), shape(形), nature(性), righteousness(義).

Conclusions : The differences of the explanations between the books point that there has been a deepening understanding of Yinyangwuxing and developments of Yunqixue(運氣學) in about 500 years from the publication of *Wuxingdayi*.

Key Words : *Suwenrushiyunqilunao*(素問入式運氣論奧), *Wuxingdayi*(五行大義), Wuxing(五行), Sipgan(十干), Sibiji(十二支)

* Corresponding Author : Kim Do-Hoon. D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金度勳, 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史學教室,

Tel : 031-750-5422,
Email : chulian@gachon.ac.kr
Received(26 July 2016), Revised(17 August 2016),
Accepted(18 August 2016).

I. 緒 論

宋代 劉溫舒가 지은 『素問入式運氣論奧』(이하 약칭 『運氣論奧』)는 최초의 運氣學 전문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劉溫舒는北宋 哲宗 때의 文官朝散郎으로 大醫學司業을 맡았으며¹⁾ 北宋 元符2年(1099년)에 『素問入式運氣論奧』 3권을 저술하였다. 『運氣論奧』는 『黃帝內經』 運氣篇의 運氣學을 계승하여 정리하고 별도로 전해지던 運氣學 이론들을 보충함으로써 내용면에서 발전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宋代부터 출판문화가 일어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널리 보급되어 이후 運氣學이 의학 및 관련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다. 그런데 『運氣論奧』는 전문적인 運氣學 내용뿐만 아니라 한 의학의 근간이 되는 陰陽五行論에 대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자인 劉溫舒가 단순한 運氣學者가 아니라 의학 및 철학사상 전반에 조예가 깊었던 醫家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運氣論奧』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 「論五行生死順逆」, 「論十干」, 「論十二支」 등의 篇을 통하여 劉溫舒의 陰陽五行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는 五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篇이며, 후자의 두 篇에서는 十干과 十二支 각각의 어원과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劉溫舒 및 『運氣論奧』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우선 논문 중에서는 국내에는 연구물이 없으며 中國 논문으로는 蘇穎의 ‘劉溫舒與素問入式運氣論奧’(2014)에서 劉溫舒의 주요 업적으로 運氣學 이론 분야에서 劉溫舒가 『內經』의 運氣學을 계승하고 도표를 사용하여 運氣規律를 해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日月의 運行規律, 正化와 對化, 納音의 法, 月建의 法, 甲己土運의 南政 등의 문제들을 천명하였다고 설명하였다²⁾. 이보다 앞선 楊毓雋의 ‘劉溫舒對運氣學說的貢獻’(1994)에서는 劉溫舒가 運氣學說의 임상응용을 심화시켰으며 복잡한 運氣學說을 간명하게 요약하여 밝혔고 運氣와 인체 건강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³⁾.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運氣學說의 이론 분야에서 『素問入式運氣論奧』의 성과를 개괄하고 분석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運氣論奧』의 五行 및 干支의 해석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運氣論奧』 영인본 이외의 서적류는, 中國에서 2008년에 간행된 『素問運氣論奧校注』⁴⁾에서 여러 판본을 기반으로 한 원문에 注釋과 解釋을 덧붙였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에 간행된 윤창열 외의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⁵⁾가 있는데 日本 醫家인 岡本爲竹이 해설한 『運氣論奧診解』를 바탕으로 懸吐와 解釋, 注釋을 가한 책으로서 어려운 運氣理論을 易學, 象數學 등 관련 분야의 지식들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근세 이전의 『運氣論奧』 관련 서적은 주로 日本에서 저술되었는데 『運氣一言集』(작자미상, 1540)⁶⁾, 『運氣論口義』 및 『運氣論奧得助圖』(回生庵玄璞, 1635)⁷⁾, 『運氣論奧句解』(鶴飼石齋, 1646)⁸⁾, 『運氣論奧疏鈔』(松下見林, 1665)⁹⁾, 『運氣論奧纂要全解』(三屋元仲, 1684)¹⁰⁾, 『運氣論奧診解』(岡本爲竹, 1704)¹¹⁾, 『運氣論奧算法俗

1) 蘇穎. 劉溫舒與素問入式運氣論奧. 吉林中醫藥. 2014. 34(1). p.12.
2) 蘇穎. 劉溫舒與素問入式運氣論奧. 吉林中醫藥. 2014. 34(1). pp.12-14, p.73.

3) 楊毓雋. 劉溫舒對運氣學說的貢獻. 浙江中醫雜誌. 1994. (10). pp.437-439.
4) 張立平. 素問運氣論奧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5) 윤창열, 박상영.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6) 『素問』 運氣七篇과 『素問入式運氣論奧』를 注釋한 책으로 1540년에 서문이 찍어지고 1654년에 간행되었다.
7) 回生庵玄璞이 1635년에 『運氣論口義』(全3卷, 附錄1卷, 4冊)와 『運氣論奧得助圖』(1冊)을 合刊하였는데, 『素問入式運氣論奧』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위하여 表와 그림을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運氣論口義』는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 「運氣抄」, 「素問入式運氣論奧口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鶴飼石齋가 1646년에 간행하였으며 전3권, 附圖1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9) 松下見林이 1665년에 『運氣論奧疏鈔』(10卷, 10冊)와 『論奧辨證』(3卷, 3冊)을 지었는데, 『運氣論奧疏鈔』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한 諸家들의 상세한 注釋을 모으고 자기의 注釋도 붙인 책이며, 『論奧辨證』은 運氣學 理論을 총정리한 책이다.
10) 三屋元仲이 1684년에 『運氣論奧纂要全解』(3卷, 7冊), 『運氣纂要圖說』(3卷), 『或問』(1卷), 『付録』(1卷)을 간행하였다.
11) 岡本爲竹이 1704년에 간행하였으며 전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解』(香月牛山, 1727)¹²⁾, 『素問入式運氣解』(志津大二郎, 1757)¹³⁾ 등이 있다. 朝鮮에서는 『運氣論奧』에 대한 注釋書가 刊行되지는 않았으나 16, 17세기에 刊行된 여러 『黃帝內經素問』의 앞부분에 반드시 『素問入式運氣論奧』를 같이 첨부하였던 것으로 보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運氣論奧』 중에서 五行 및 干支의 의미에 대한 해석 부분을 『五行大義』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전문적인 運氣學說의 理論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의 근간이 되는 五行學說과 당시 天文, 曆法 및 宇宙論의 근간이 되는 十干, 十二支에 대하여 劉溫舒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五行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論五行生死順逆」에는 陰陽論을 바탕으로 설명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劉溫舒의 陰陽觀도 어느 정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五行大義』의 관련 내용과 비교하려는 이유는 『五行大義』가 시대적으로 약 500년 가까이 『運氣論奧』보다 먼저 만들어져 저작 연대의 차이가 크긴 하나 그 내용이 經史子集을 합쳐 170여종에 달하는 방대한 전적을 인용, 선별하여 저술되어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隋唐代 이후로 宋代까지 陰陽五行論을 응용한 象數學은 성행하였으나 陰陽五行의 개념과 그 철학적 배경을 깊이 있게 論述한 저작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五行大義』의 저자인 蕭吉은 字가 文休이고 南蘭陵(지금의 江蘇省 常州 武進) 사람이며 530년 전후에 출생하여 606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¹⁴⁾. 그는 齊, 梁의 宗室 출신으로 祖父인 蕭懿가 梁武帝의 長兄이었는데, 南北朝 말기와 隋의 교체기에서 4개 王朝의 15명의 黃帝 아래에서 古今의 陰陽書들을 考定하는 직책을 주로 담당하였다. 6세기 말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蕭吉의 대표저서인 『五行大義』 이외에 『金海』三十卷, 『相經要錄』一卷, 『宅經』八卷, 『葬經』六卷, 『樂譜』十二卷, 『帝王養生方』二卷, 『相手板要訣』一卷, 『太一立成』一卷 등을 저

술하였으나 모두 망실되었다. 『五行大義』도 이미 11세기 이후 망실되어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다가 清代 嘉慶 9년(1804년)에 許宗彥이 日本 林述齋의 『佚存叢書』 중에 수록된 『五行大義』 翻刻本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¹⁵⁾. 『五行大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일본의 中村璋八이 시작하여¹⁶⁾ 1984년에 『五行大義校註』를 간행하였는데¹⁷⁾ 日本 내의 여러 판본을 바탕으로 校勘하고 관련 여러 서적의 내용을 注釋으로 달아 놓았다¹⁸⁾. 본 논문에서는 『運氣論奧』의 「論五行生死順逆」, 「論十干」, 「論十二支」 등에 포함되어 있는 五行 및 干支의 의미 해석 부분에 대하여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윤창열 외, 2007)와 『五行大義校註』(中村璋八, 1984)의 원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校勘은 『素問運氣論奧校註』(張立平, 2008), 『運氣論奧疏鈔』, 『運氣論奧診解』,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 등을 비교하였다. 원문 번역은 『運氣論奧』에 대해서만 시행하였으며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를 주로 참고 하되 직역에 가깝게 바꾸었고 해석이 다른 부분에는 주석을 추가하여 밝혔다.

본 연구는 또한 전문적인 분야인 運氣學說의 근간이 되는 五行論과 天文, 曆法 및 宇宙論과 관련된 十干, 十二支에 대하여 劉溫舒를 포함한 당시의 醫家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五行學說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폭넓게 살펴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本 論

1. 『運氣論奧論五行生死順逆』과 『五行大義釋五行名』의 五行에 대한 해석 비교

木主於東, 應春. 木之爲言, 觸也, 冒也, 陽氣觸動, 冒地而生也. 水流趨東, 以生木也, 木上發而

12) 香月牛山가 1727년에 간행하였으며 전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志津大二郎가 1757년에 간행하였으며 1冊으로 되어 있다.

14) 錢杭. 蕭吉與五行大義. 史林. 1999. 2. p.36.

15) 錢杭. 蕭吉與五行大義. 史林. 1999. 2. p.43.

16) 中村璋八. 五行大義の基礎的研究. 東京. 明德出版社. 1976.

17)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東京. 汲古書院. 1984.

18) 『五行大義校註』는 鈔本인 元弘相傳本을 底本으로 하여 여러 鈔本과 刊本으로 校勘하였다.

覆下,乃自然之質也.

목은 동방을 주관하고 봄에 응한다. 목이라는 말은 부딪히고 덮어쓰는 것이니 양기가 부딪히고 움직여 땅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다. 물이 흘러 동쪽으로 달려가는 것은 목을 생하려는 것이고, 목은 위로 펼치다가 뒤집혀 내려오니 이내 본디 그러한 것의 질이다.

여기서 觸은 倂족한 것으로 부딪혀서 뚫는 것을 말하는데 『五行大義』에서는 『春秋元命苞』¹⁹⁾를 인용하면서 “木者, 觸也, 觸地而生.”²⁰⁾이라 하였다. 또한 許慎의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許慎云木者, 冒也, 言冒地而出, 字從於中, 下象其根也, 其時春.”²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五行大義』에서 『禮記』와 『尸子』²²⁾를 각각 인용하면서 “春之爲言, 蠢也, 產萬物者也, 其位在東方.”²³⁾, “東者, 動也, 震氣故動.”²⁴⁾라고

19) 『春秋元命苞』는 『春秋緯元命苞』, 『元命苞』라고도 하며 前漢 말기에 만들어진 ‘春秋緯’의 하나이다. 이미 망실되어 遺編과 殘圖만이 남아 있다가 清代에 黃奭, 馬國翰 등이 輯錄하여 각각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 가운데 수록하였고 後漢, 魏의 宋均의 注釋이 남아있다. 西晉, 後趙, 前秦, 北魏, 南朝劉宋, 蕭梁, 隋, 元, 明 등 9개 王朝에서 13번 金서가 되었다.

20) 黃奭.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8,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693,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5).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p.370. “木之爲言, 觸也, 氣動躍也.”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7 “角, 觸也, 物觸地而出, 戴芒角也.(漢書律曆志)”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1. “木在東方. 東方者, 陰陽氣始動, 萬物始生. 木之爲言, 觸也. 陽氣動躍.(白虎通五行)”

21)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420. “木, 冒也. 冒地而生, 東方之行. 从中, 下象其根.”

22) 『尸子』는 東周 戰國時代의 尸佼가 지은 책으로 총 20권이었고 일부만 전해져 오다가 清代에 여러 번 輯錄되었다. 儒家, 墨家, 名家, 法家, 陰陽家 등 雜家의 설을 담고 있으며 “四方上下曰宇, 往古來今曰宙”라 하여 宇宙라는 말이 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著者未詳. 禮記.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5. p.718. “東方者春, 春之爲, 言蠢也. 產萬物者, 聖也.(禮記鄉飲酒義)”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9 “春, 蠢也. 物蠢生, 乃動運.(漢書律曆志)”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2. “春之爲言, 蠢. 蠢, 動也.(白虎通五行)”

한 것은 『運氣論奧』에는 빠져있다. 뒷부분에서 水生木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木氣도 단지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오는 양면을 설명하고 있다. 木의 성질을 質로 표현하였는데 金이 가지고 있는 形의 특성이 주로 사물의 외형을 말한다면 質은 사물의 물적인 바탕을 의미하여 木에서 質이 만들어지고 金에서 形이 굳어지는 것을 대비하였다.

火主於南, 應夏. 火之爲言, 化也, 燬也, 陽在上, 陰在下, 燬然盛而變化萬物也. 鑽木作火, 木所生也, 然火無正體, 體本木焉, 出以應物, 盡而複入, 乃自然之理也.

화는 남방을 주관하고 여름에 응한다. 화라는 말은 변화시키며 타오르는 것이니 양은 위에 있고 음은 아래에 있어서 불이 타듯 활활 성하여 만물을 변화시킨다. 나무를 뚫고 비벼서 불을 만드는 것은 목이 생하는 것이니, 화는 진정한 실체가 없고 실체는 목에 근본하므로 화가 나와서 외물에 응하다가 다하면 다시 들어가니 이내 본디 그러한 것의 리이다.

『白虎通』에서 “火之爲言, 化也. 陽氣用事, 萬物變化也.”²⁵⁾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고 燬然하게 타오른다고 한 것은 『五行大義』에서 許慎의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火者, 炎上也. 其字炎而上, 象形者也, 其時夏.”²⁶⁾라고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단 『五行大義』에서는 『尙書大傳』²⁷⁾과 『釋名』²⁸⁾을 각각 인용하면서 “何以謂之夏. 夏, 假也. 假者, 方呼萬物而養之.”라

24) 李守奎, 李軼. 尸子譯注.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p.55. “春爲忠. 東方爲春. 春, 動也. 是故鳥獸孕字, 草木華生, 萬物咸遂, 忠之至也.”

25)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1. “火在南方. 南方者, 陽在上, 萬物垂枝. 火之爲言, 委隨也, 言萬物布施. 火之爲言, 化也, 陽氣用事, 萬物變化也.(白虎通五行)”

26)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837. “火, 燬(妮)也. 南方之行, 炎而上. 象形.”

27) 『尙書』에 대한 주석서의 하나로서 정확한 저자와 저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기원전 200년~100년 사이에 今文學派에 의하여 저술된 것을 보고 있다.

28) 東漢 시대에 劉熙가 지은 訓詁學 저작으로 총 8권이던 여러 사물 이름의 어원을 밝혔다. 明代에 郎奎金이 五雅의 하나로 보고 『逸雅』라고 개칭하였다.

하고 “夏, 假者, 寬假萬物, 使生長也, 其位南方.”이라 하여²⁹⁾ 크고 너그러워서[假] 만물을 길러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尙書大傳』에서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南, 任也, 物之方任也.”³⁰⁾라 하여 南方에서 만물을 바야흐로 맡는다고 설명하였다. 『運氣論奧』에서는 陰陽이 상하에 위치하는 것과 木이 火를 생하여 外物과 응할 때에 출입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그러한 성질을 理로 표현하였는데 水의 특성을 性으로 표현한 것과 대비된다. 理와 性 모두 氣가 아닌 무형의 것임은 동일하나 性은 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특히 지칭하는 차이가 있다.

金主於西, 應秋, 金之爲言, 禁也, 陰氣始禁止萬物而孳斂. 披沙揀金, 土所生也, 生於土而別於土, 乃自然之形也.

금은 서방을 주관하고 가을에 응한다. 금이라는 말은 금지하는 것이니 음기가 비로소 만물을 금지하여 움켜쥐고 거두어들인다. 모래를 헤쳐서 금을 가려내는 것은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니 흙에서 나왔으나 흙과 구별되니 이내 본디 그러한 것의 형이다.

『五行大義』에서 許慎의 말을 인용하면서 “金者, 禁也, 陰氣始起, 萬物禁止也. 土生於金, 字從土, 左右注, 象金在土中之形也. 其時秋也.”³¹⁾라고 한 것을

따라서 金의 성질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이로써 만물을 수렴한다고 하였다. 또한 金字의 象이 土字에서 나온 것이라는 許慎의 설명과 같이 土生金을 강조하였는데 生한 이후에는 土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또한 『五行大義』에서는 가을의 의미에 대하여 『禮記』와 『尸子』를 각각 인용하면서 “秋之爲言, 愁也, 愁之以時察守養者也.”, “秋, 肅也, 萬物莫不肅敬, 恭莊, 禮之主也.”라 하여³²⁾ 義와 禮로 설명하고 있으며,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天地反物爲秋, 其位西方.”³³⁾이라 하였다. 『尙書大傳』에서 西方을 “西, 鮮也, 鮮, 訊也, 訊者, 始入之貌也.”³⁴⁾라 한 것도 참고하고 있다. 『運氣論奧』에서는 金의 성질을 形이라 하였는데 가을에 기운이 수렴되면서 物의 외부에서 형태의 윤곽이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水主於北, 應冬. 水之爲言, 潤也, 陰氣濡潤, 任養萬物也. 水西而東, 金所生也, 水流曲折, 順下而達, 乃自然之性也.

수는 북방을 주관하고 겨울에 응한다. 수라는 말은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 음기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만물을 말아서 기른다.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금이 생하는 것이니 물이 흐르는 것이 굽고 끊어져 잘 따라 내려가서 뻗어나니 이내 본디 그러한 것의 성이다.

29) 著者未詳. 尙書大傳(文淵閣四庫全書68, 經部, 書類).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389. “何以謂之夏, 夏者, 假也, 吁茶萬物養之外者也, 故曰南方夏也.”

劉熙著, 畢沅疏證, 王先謙補. 釋名疏證補.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2008. p.7. “夏, 假也, 寬假萬物, 使生長也.(釋名釋天)”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7. “南, 任也. 陽氣任養物, 於時爲夏. 夏, 假也, 物假大, 乃宣平.(漢書律曆志)”

著者未詳. 禮記.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5. p.718. “南方者夏, 夏之爲言, 假也. 養之, 長之, 假之仁也.(禮記鄉飲酒義)”

30) 著者未詳. 尙書大傳(文淵閣四庫全書68, 經部, 書類).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389. “南方者, 何也. 任方也. 任方者, 萬物之方任.”

31)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下).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1220. “金, 五色金也. 黃爲之長, 久鍾不生衣, 百鍊不輕, 從革不韋(達). 西方之行. 生於土, 从土, (ノ)又注, 象金在土中形.” 문장의 차이가 조금 있다.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1. “金在西方. 西方者, 陰始起, 萬物禁止. 金之爲言, 禁也.(白虎通五行)”

32) 著者未詳. 禮記.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5. p.718. “西方者秋, 秋之爲言, 愁也. 愁之以時察守養者也.(禮記鄉飲酒義)”

李守奎, 李軼. 尸子譯注.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p.57. “秋爲禮. 西方爲秋. 秋, 肅也, 萬物莫不肅敬, 禮之至也.”

33)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571. : “秋, 禾穀孰也. 从禾, 爻省聲.”이라 하여 문장이 다르며 『太平御覽時序部九』(李昉. 文淵閣四庫全書 893.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345.)의 『說文解字』 인용문에는 “說文曰, 天地反物爲秋, 字從禾, 爻省聲.”이라고 되어 있다.

34) 著者未詳. 尙書大傳(文淵閣四庫全書68, 經部, 書類).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389. “西方者, 何也. 鮮方也. 鮮, 訊也. 訊者, 始入之貌.”

『春秋元命苞』에서 “水之爲言，演也。陰化淖濡，流施潛行也.”³⁵⁾라고 한 것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春秋元命苞』에서는 추가적으로 “故立字，兩人交，一以中出者爲水，一者，數之始，兩人譬男女，陰陽交以一起也。水者，五行始焉，元氣之溲液也.”³⁶⁾라 하여陰陽이 하나를 이루어 五行이 시작됨을 설명하였다. 『五行大義』에서는 또한 『釋名』, 『廣雅』, 『白虎通』 등에서 “水，準也，平準萬物.”³⁷⁾이라 한 것을 인용하였고, 『管子』와 『說文解字』에서 水를 물의 흐름을 根脈에 비유하고 그 속에 微陽이 있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³⁸⁾. 그밖에 冬과 北의 의미에 대해서도 『尸子』와 『禮記』를 인용하고 있다³⁹⁾. 『運氣論奧』에서는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비유하여 金生水를 말하였고 水의 성질은 物의 性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火가 理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水는 선천적으로 내재된 性과 같아서 和順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土主於中央，兼位西南，應於長夏。土之爲言，吐也，含吐萬物，將生者出，將死者歸，爲萬物家，故長於夏末，火所生也，土或勝水，水乃反一，自然之義也。

토는 중앙을 주관하며 겸하여 서남방에 자리 잡고 장하에 응한다. 토라는 말은 토해내는 것이니 만물을 머금다가 토해내어 장차 태어날 것은 나가고 장차 죽을 것은 되돌아오니 만물의 집이 된다. 그러므로 여름의 끝에서 자라는 것은 화가 생하는 것이니 토가 간혹 수를 이기나 수가 이내 돌이켜 하나가 되는 것이 본디 그러한 것의 의미이다.

『運氣論奧』에서는 『春秋元命苞』에서 “土之爲言，吐也，含吐氣精，以生於物.”⁴⁰⁾이라 하였고 許慎이 “吐生者也”라 한 것을 주로 인용하였다. 『五行大義』에서는 또한 許慎의 말을 빌어서, 土字의 象이 땅 표면과 속을 수직으로 이어서 物이 처음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본떴다고 하였고, 季의 의미를 ‘늪음’으로 풀어서 설명하였다⁴¹⁾. 『五行大義』에서는 추가로 『禮斗威儀』⁴²⁾를 인용하여 “得皇極之正氣，含黃中之德，

35) 黃爽.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8,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693.;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5).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p.369.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1. “水位在北方. 北方者, 陰氣在黃泉之下, 任養萬物. 水之爲言, 淮(准)也. 陰化沾濡, 任生木.(白虎通五行)”
36) 黃爽.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8,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693. “故其立字, 兩人交, 一以中出者爲水, 一者, 數之始, 兩人譬男女, 陰陽交物以一起也.” 문장이 짧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37) 劉熙者. 畢沅疏證, 王先謙補. 釋名疏證補.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2008. p.9. “水, 準也, 準平物也.(釋名·釋天)” 王念孫. 廣雅疏證(1). 山東. 山東禹誼書社. 1991. p.627. “水, 準也.(廣雅·釋言)”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1. “水之爲言, 淮(准)也. 陰化沾濡, 任生木.(白虎通·京師)”
38)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東京. 汲古書院. 1984. p.9. : 管子云, 水者, 地之血氣, 筋脈之通流者, 故曰水. 許慎云, 其字象泉竝流, 中有微陽之氣, 其時冬.
王雲五主編. 管子(2). 臺北. 商務印書館. 1956. p.74 “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也. 故曰水具材也.(管子·水地)”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下).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903. “水, 準也. 北方之行. 象衆水竝流, 中有微陽之氣也.”
39)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東京. 汲古書院. 1984. p.9. “尸子云, 冬, 終也, 萬物至此終藏也. 禮記云, 冬之爲言, 中也, 中者, 藏也. 其位北方. 尸子云, 北, 伏也, 萬物至冬皆伏, 貴賤若一也.”
著者未詳. 禮記.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5. p.718. “北方者冬, 冬之爲言, 中也. 中者, 藏也.(禮記·鄉飲酒義)”
李守奎, 李軾. 尸子譯注.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p.57. “冬爲信. 北方爲冬. 冬, 終也, 北, 伏方也. 是故萬物至冬皆伏, 貴賤若一, 美惡不減, 信之至也.”
著者未詳. 尚書大傳(文淵閣四庫全書68, 經部, 書類).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389. “北方者, 何, 伏方也. 伏方者, 萬物之方伏也. 伏方何以謂之冬, 冬者, 中也. 中也者, 物方藏於中也. 故曰北方冬也.”

40) 黃爽.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8,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693. “土之爲言, 吐也. 言子成父道, 土也. 氣精以輔也. 陽達於三, 故成土. 其立字, 十加一爲土.”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5).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p.369. “土之爲言, 吐也. 子成父道, 吐氣精以輔也. 陽立於三, 故成土. 其立字, 十夾一爲土.”
41)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東京. 汲古書院. 1984. p.8. “許慎云, 其字二, 以象地之下與地之中, 以一直畫, 象物初出地也. 其時季夏, 季, 老也, 萬物於此成就, 方老, 王於四時之季, 故曰老也. 其位處內, 內, 通也.”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下).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1185. “土, 地之吐生物者也. 二象地之下, 地之中, 丨, 物出形也.”
42) 漢代부터 내려오는 『七緯』 가운데 『禮緯』에 속하는 책으로 역시 黃爽, 馬國翰 등의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 가운데 輯錄되어 있다.

能苞萬物.”⁴³⁾이라 하여 土가 皇極의 덕을 가지고 만물을 감싸고 기쁨을 말하였다. 추가적으로 『運氣論奧』에서는 土가 만물이 생하고 죽는 것을 내고 들인다고 하여 우주의 변화를 관장하는 큰 집으로 표현하였고, 土와 火, 水 간의 生克 관계도 설명하였다.

2. 『運氣論奧論十干』과 『五行大義論支干名』의 十干名에 대한 해석 비교

蓋甲乙, 其位木, 行春之令. 甲乃陽內而陰尚包之, 草木始甲而出也. 乙者, 陽適中, 然未得正方, 尚乙屈也. 又云乙, 軋也, 萬物皆解孚甲, 自抽軋而出之.

대개 갑과 을은 그 자리가 목이고 봄의 시령을 행한다. 갑은 이내 양이 안에 있고 음이 여전히 감싸서 초목이 비로소 꺾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을은 양이 절반을 지났으나 아직 반듯하게 퍼짐을 얻지 못하여 여전히 구부러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을은 빼격거리는 것이라 하니 만물이 모두 꺾질을 풀어버리고 스스로 뚫고 빼격거리며 나오는 것이다.

甲에 대해서는 아직 陰이 陽을 감싸고 있어서 꺾질을 가지고서 나온다고 설명하였고, 乙에 대해서는 鄭玄이 『禮記·月令』에 단 注를 인용하면서 “甲者, 抽也, 乙者, 軋也, 春時萬物皆解孚甲, 自抽軋而出也.”⁴⁴⁾라고 하여 빼격거리면서 어렵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하였다. 『五行大義』에서는 甲에 대하여 『詩緯推度災』⁴⁵⁾에서 “甲者, 押也, 春則開也, 冬則闔也.”⁴⁶⁾라 한 것을 인용하여 단지 萬物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丙丁, 其位火, 行夏之令. 丙乃陽上而陰下, 陰內而陽外. 丁陽其強, 適能與陰氣相丁. 又云丙, 炳也, 萬物皆炳然著見而強也.

병과 정은 그 위치가 화이고 여름의 시령을 행한다. 병은 이내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에 있으며 음이 속에 있고 양이 밖에 있는 것이다. 정은 양이 그렇게 강하여 마침내 능히 음기와 더불어 서로 대적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병은 밝은 것이라 하니 만물이 모두 밝게 드러나서 강한 것이다.

『五行大義』에서는 丙에 대하여 “丙者, 柄也, 物之生長, 各執其柄.”⁴⁷⁾라 하여 만물을 生長시키는 것을 말하였고, 鄭玄이 “丙者, 炳也, 夏時萬物強大, 炳然著見也.”⁴⁸⁾라 한 것을 인용하여 만물이 강대해져서

包曰, 乙者, 屈也, 盤屈芒而欲伸. 鄭司農曰, 乙, 軋也, 萬物自軋而出.(六壬神定經釋日)”

43) 黃奭.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8,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99. 『五行大義』의 해당 구절을 인용한 것이며, 馬國翰의 輯本에도 보이지 않는다.

44) 鄭玄. 禮記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1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520. “乙之言, 軋也. 日之行, 春東從青道, 發生萬物, 月爲之佐. 時萬物皆解孚甲, 自抽軋而出, 因以爲日名焉.(禮記·月令)”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甲者, 言萬物剖符甲而出也. 乙者, 言萬物生軋軋也.(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出甲於甲, 奮軋於乙.(漢書·律曆志)”

楊維德. 景佑六壬神定經(新編叢書集成24).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646. “春秋元命包曰, 甲者, 狎也. 春即開, 冬即合. 鄭司農曰, 甲者, 拆也, 萬物甲拆而後出… 春秋元命

45) 漢代부터 내려오는 『七緯』 가운데 『詩緯』에 속하는 책으로 줄여서 『推度災』라고도 하며, 黃奭, 馬國翰 등의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 가운데 輯錄되어 있다.

46) 黃奭.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8,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58. 『五行大義』의 해당 구절을 인용한 것이며, 馬國翰의 輯本에도 보이지 않는다.

杜臺卿. 玉燭寶典(新編叢書集成43).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322. “詩紀歷樞曰, 甲, 押者也. 春則闔(古開之也), 冬則闔, 春下種, 秋藏穀, 萬物權輿出萌.(正月孟春第一)” 『詩紀歷樞』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47) 杜臺卿. 玉燭寶典(新編叢書集成43).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339. “詩紀歷樞曰, 丙者, 柄也. 丁者, 亨.(四月孟夏第四)” 『詩紀歷樞』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48) 鄭玄. 禮記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1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p.573-574. “丙之言, 炳也. 日之行, 夏南從赤道, 長幼伏物, 月爲之佐. 時萬物皆炳然著見而強大, 又因以爲日名焉.(禮記·月令)”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丙者, 言陽道著明, 故曰丙. 丁者, 言萬物之丁壯也, 故曰丁.(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明炳於丙, 大盛於丁.(漢書·律曆志)”

楊維德. 景佑六壬神定經(新編叢書集成24). 臺北. 新文豐出版

밝게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비하여 『運氣論奧』에서는 陰陽의 상하내외 분포로서 丙의 특성을 먼저 설명하였고 나중에 炳然하게 강해짐을 추가하였다. 丁에 대해서 『五行大義』에서 추가적으로 “丁者, 亨也, 亨, 猶止也, 物之生長, 將應止也.”⁴⁹⁾라 하여 生長을 다한 끝에 장차 그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 것에 비하여 陽氣가 강해져서 능히 陰氣와 대적하는 상황이 丁이라고 하였다.

戊己, 其位土, 行周四季. 戊陽土也, 萬物生而出之, 萬物伐而入之. 己陰土也, 無所爲而得己⁵⁰⁾者也. 又云戊, 茂也, 己, 起也, 土行四季之末, 萬物含秀者, 抑屈而起也.

무와 기는 그 위치가 토이고 두루 사계에 행한다. 무는 양토이니 만물을 행하여 내보내고 만물을 베어서 들인다. 기는 음토이니 하는 것이 없어도 마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무는 무성한 것이고 기는 일어나는 것이라 하니 토가 사계의 끝을 행하여 만물이 빼어남을 머금은 것이 억눌려 구부러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다.

『五行大義』에서는 우선 戊에 대하여 “戊者, 質也, 生長既極, 極則應成貿易前體也.”⁵¹⁾라 하여 만물이 生長을 다한 후에 먼저의 體를 서로 바꾸어 이루게 된다고 하였는데, 『運氣論奧』에서는 만물이 生伐함에 따라 出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貿易의 의미

公司. 2008. p.646. “春秋元命包曰, 丙者, 明也, 言太陽明盛. 鄭司農曰, 丙, 炳也, 萬物盛茂, 炳然而明. … 春秋元命包曰, 丁者, 強也, 言萬物此時強盛. 鄭司農曰, 萬物長養, 於此剛強.(六壬神定經·釋日)”

49) 杜臺卿. 玉燭寶典(新編叢書集成43).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339. “詩紀歷樞曰, 丙者, 柄也. 丁者, 亨.(四月孟夏第四)” 『詩紀歷樞』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50) 得己: 『運氣論奧疏鈔』에서는 “己字彙, 畢”, “坤卦文言曰, 地道無成而代有終也.”라 하여 일을 마무리하여 끝마치는 것으로 보았고, 『運氣論奧診解』에서는 위치가 極에 도달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는 후자로 해석하였다. 『運氣論奧校注』에는 ‘己’가 ‘己’로 되어 있다.

51) 杜臺卿. 玉燭寶典(新編叢書集成43).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350. “詩紀歷樞曰, 戊者, 質也. 陰死其陽, 柔變剛也.(六月季夏第六)” 『詩紀歷樞』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현재 黃奭, 馬國翰의 輯本에는 이 문장이 없다.

가 이때의 出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己에 대해서는 『五行大義』에서 “己者, 紀也, 物既始成, 有條紀也.”⁵²⁾라 하여 만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조리와 버리가 생김을 말하였다. 이에 비하여 『運氣論奧』에서는 하는 바 없이 일을 마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뒤에 추가된 부분에서는 『五行大義』에서 鄭玄의 말을 주로 인용하면서 “戊之言, 茂也, 己之言, 起也, 謂萬物皆枝葉茂盛, 其含秀者, 抑屈而起也.”⁵³⁾라고 하였다. 『運氣論奧』에서 戊와 己를 각각 陽土와 陰土로 나누어 설명한 점이 특이하다.

庚辛, 其位金, 行秋之令. 庚乃陰干陽, 更而續者也⁵⁴⁾. 辛乃陽在下陰在上, 陰干陽, 極於此⁵⁵⁾. 庚更故也, 而辛新也, 庚辛皆金, 金味辛, 物成而後有味. 又云萬物肅然更茂, 實新成.

경과 신은 그 위치가 금이고 가을의 시령을 행한다. 경은 이내 음이 양을 간섭하는 것이니 바뀌지만 이어지는 것이다. 신은 이내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위에 있는 것이니 음이 양을 간섭하는 것이 여기에서 극에 이른다. 경은 이어져 오던 것을 바꾼다는 것이며 신은 새롭게 한다는 것이니 戊와 己는 모두 금으로 금의 맛은 매운 맛이니 만물은 각각 이루어진 후에 맛이 생긴다. 또

52)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理紀於己.(漢書律曆志)”

楊維德. 景佑六壬神定經(新編叢書集成24).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646. “鄭司農曰, 己者, 紀也. 言萬物皆有條貫成紀. □□□□.(六壬神定經·釋日)”

53) 鄭玄. 禮記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1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602. “戊之言, 茂也. 己之言, 起也. 日之行四時之間, 從黃道, 月爲之佐. 至此萬物皆枝葉茂盛, 其含秀者, 抑屈而起, 故因以爲日名焉.(禮記月令)”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豐楙於戊.(漢書律曆志)”

楊維德. 景佑六壬神定經(新編叢書集成24).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646. “鄭司農曰, 戊, 茂也, 言萬物于此盛茂.(六壬神定經·釋日)”

54) 庚乃陰干陽, 更而續者也: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는 ‘陰干陽은 庚이 陰에 속해 있으나 순서상 陽干인 것을 말하며 ‘更而續’은 전반기의 陽이 바뀌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陰陽이 서로 맞부딪혀 얽혀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해석과 조금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5) 極於此: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는 陰位의 極에 완전히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 만물은 숙연히 무성함을 바꾸어 열매를 새롭게 이룬다고 하였다.

『五行大義』에서 “庚者, 更也, 辛者, 新也, 謂萬物成代, 改更復新也.”⁵⁶⁾라 한 것을 일부 인용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鄭玄이 말한 “萬物皆肅然改更, 秀實新成也.”⁵⁷⁾와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단 『運氣論奧』에서는 陰이 陽을 간섭한다고 하고 陰陽의 上下 위치로도 설명하여 陰陽 관계를 추가하였으며, 辛에서 物이 이루어지면 味가 생김을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壬癸, 其位水, 行冬之令. 壬乃陽既受胎, 陰壬之, 乃陽生之位. 壬而爲胎, 與子同意. 癸者, 揆也, 天令至此, 萬物閉藏, 懷妊於其下, 揆然萌芽.

임과 계는 그 위치가 수이고 겨울의 시령을 행한다. 임은 이내 양이 이미 수태를 하고 음이 말은 것이니 이내 양이 낳는 자리이다. 말아서 태를 이루는 것은 자와 더불어 뜻이 같다. 계는 헤아리는 것이니 하늘의 령이 이때에 이르면 만물이 단고 갈무리하여 그 아래에서 아이를 품어 임신하다가 헤아리듯이 싹이 튼다.

『五行大義』에서 “壬者, 任也, 癸者, 揆也, 陰任於陽, 揆然萌芽於物也.”⁵⁸⁾이라 한 것과 鄭玄의 말을 인용하여 “時維閉藏萬物, 懷任於下, 揆然萌芽也.”⁵⁹⁾라 한 것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단 壬의 작용이 子의 그것과 동일함을 덧붙였다.

3. 『運氣論奧論十二支』과 『五行大義論支干名』의 十二支名에 대한 해석 비교

子者, 北方至陰寒水之位而一陽肇生之始, 故陰極則陽生, 壬而爲胎, 子之爲子, 此十一月之辰也.

자는 북방의 음이 지극한 한수의 자리로서 일양이 열어서 나오는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음이 끝까지 다하면 양이 생하므로 입에서 말아서 태가 되고 자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니, 이것이 십일월의 진이다.

『五行大義』에서 “子者, 孳也, 陽氣既動, 萬物孳萌.”⁶⁰⁾이라 하였고 『三禮義宗』⁶¹⁾을 인용하면서 “陽

58)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壬之爲言, 任也, 言陽氣任養萬物於下也. 癸之爲言, 揆也, 言萬物可揆度, 故曰癸.(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懷任於壬, 陳揆於癸.(漢書律曆志)”

黃奭.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7,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85. “冬曰壬癸者. 壬, 任也, 癸, 揆也, 言萬物更任生黃泉, 皆有法度也(三禮義宗).”

楊維德. 景佑六壬神定經(新編叢書集成24).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646. “壬… 鄭司農曰, 言冬時閉藏, 萬物懷妊於下… 癸… 鄭司農曰, 物懷任, 於此時揆然萌芽.(六壬神定經·釋日)”

59) 鄭玄. 禮記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1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632. “其日壬癸. 壬之言, 任也. 癸之言, 揆也. 日之行, 東北從黑道, 閉藏萬物, 月爲之佐. 時萬物懷任於下, 揆然萌芽, 又因以爲日名焉.(禮記正義·月令)”

60)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子者, 滋也. 滋者, 言萬物滋於下也.(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孳萌於子.(漢書律曆志)”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3. “壯於子, 於子者, 孳也, 律中黃鐘.(白虎通五行)”

61) 『儀禮』, 『周禮』, 『禮記』를 통틀어 三禮라 불렀으며 이에 대하여 南北朝 시대 梁의 崔靈恩이 주석하여 『三禮義宗』 47권을 지었다. 黃奭, 馬國翰 등의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 가운데 輯錄되어 있다.

56) 鄭玄. 禮記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1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606. “庚之言, 更也. 辛之言, 新也. 日之行, 秋西從白道, 成熟萬物, 月爲之佐. 萬物皆肅然改更, 秀實新成, 又因以爲日名焉.(禮記·月令)”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庚者, 言陰氣庚萬物, 故曰庚. 辛者, 言萬物之辛生, 故曰辛.(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斂更於庚, 悉新於辛.(漢書律曆志)”

黃奭.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7,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85. ;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3).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p.181. “秋曰庚辛者, 庚, 更也, 辛, 新也, 言物皆改更而新也.(三禮義宗)”

楊維德. 景佑六壬神定經(新編叢書集成24).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646. “春秋元命包曰, 庚者, 更也, 言萬物至秋秀實. 鄭司農曰, 庚, 更也, 萬物至秋更空也… 春秋元命包曰, 辛者, 新也, 言萬物更前體而新. 鄭司農曰, 萬物秀而新.(六壬神定經·釋日)”

57) 鄭玄. 禮記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1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606.

氣至, 孳養生.”⁶²⁾이라 하여 子에서 陽이 始生하는 것을 잉태하여 싹을 키우는 것이라 하였다. 『運氣論奧』에서도 유사하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壬의 작용과 동일하게 보았다. 또한 『五行大義』에서는 “子名困敦, 困, 混也, 敦, 沌也, 言陽氣混沌, 萬物牙孽也.”⁶³⁾라 하여 陽氣가 뒤섞여 돌면서 그 과정에서 새싹이 나음을 설명하였다.

至丑, 陰尙執而紐之. 又丑, 陰也, 助也, 謂十二月終始之際, 以結紐爲名焉.

축에 이르러도 음이 여전히 잡고서 묶고 있다. 또한 축은 음이며 돕는 것이니 십이월의 한 해가 끝나고 시작하는 사이에 맺고 묶는 것으로써 이를 지음을 말한다.

『五行大義』에서 “丑者, 紐也, 紐者, 繫也, 續萌而繫長也, 故曰孳萌於子, 紐牙於丑.”⁶⁴⁾라 한 것을 주로 인용하여 싹이 튼 후에 계속 자람을 말하였고, 한편으로 丑이 陰으로서 한 해가 끝나는 십이월에 마무리를 하는 의미를 『三禮義宗』을 인용하면서 “言居終始之際. 故以紐結爲名.”⁶⁵⁾이라 설명하고 있

다⁶⁶⁾. 또한 『五行大義』에서 “丑名赤奮若, 奮, 起也, 若, 從也, 言陽氣奮迅萬物而起, 無不順其性, 赤, 陽色也.”⁶⁷⁾라 하였는데 양기가 펼쳐 일어남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寅正月也, 陽已在, 陰已在下, 人始見之時, 故律管飛灰以候之, 可以述事之始也. 又寅, 演也, 津也, 謂物之津塗⁶⁸⁾也⁶⁹⁾.

인은 정월이니 양이 이미 위에 있고 음이 이미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로소 볼 수 있는 때이니, 그러므로 율관에 재가 날리는 것으로써 살펴서 일을 떠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다. 또한 인은 물이 흘러 퍼지는 것이고 진액이 새어나오는 것이니 만물이 진액으로 범벅이 되는 것을 말한다.

『運氣論奧』에서는 陽이 이미 위에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므로 일을 떠나갈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보았는데, 『五行大義』에서는 대체적으로 “寅者, 移也, 亦云引也, 物牙稍吐, 引而申之, 移出於地也.”⁷⁰⁾라 하여 만물의 싹을 당겨서 퍼지게 하는 것으로 보았고 『爾雅歲次』와 그에 대한 『淮南子』의 注를 인용하여 “大歲在寅, 名攝提格, 淮南子注云格, 起也, 萬物承陽而起.”⁷¹⁾라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三禮義宗』

62)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3).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p.181. “仲冬之月… 陽氣始至.(三禮義宗)”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子者, 孳也, 謂陽氣至此更孳生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63)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困, 混, 敦, 沌也. 言陽氣皆混沌, 萬物牙孽也.(淮南子·天文訓)”

64)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45. : 張守節의 「正義」에서 “或一本云, 醜者, 紐也. 言陽氣在上未降, 萬物厄紐未敢出也.(史記律書)”라 하였다. 바로 위의 『史記』原文에서 “十二月也, 律中大呂, 大呂者, 其於十二月爲醜.”라 하였으므로 丑이 아마 避諱 등의 이유로 醜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紐牙於丑.(漢書律曆志)”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3. “衰於丑. 丑者, 紐也. 律中大呂.(白虎通·五行)”

65)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三禮義宗』의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丑者, 紐也. 言終始之際, 以紐結爲名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66) 『五行大義』에서는 또한 ‘春秋緯’를 인용하여 “大陰所在之名”이라 하여 陰의 성질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67)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 在丑, 曰赤奮若.(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3. “李巡云, 陽氣奮迅萬物而起, 無不若其性, 故曰赤奮若. 赤, 陽色, 奮, 迅也, 若, 順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分, 起也, 若, 順也. 言陽奮物而起之, 無不順其性也. 赤, 陽色.(淮南子·天文訓)”

68) 塗 : 『素問運氣論奧校注』에는 ‘塗’로 되어 있다.

69) 也 :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와 『運氣論奧疏鈔』에는 빠져 있다.

70)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引達於寅.(漢書律曆志)”

杜臺卿. 玉燭寶典(新編叢書集成43).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323. “詩紀歷樞曰, 寅者, 移也.(正月孟春第一)” 『詩紀歷樞』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71)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在寅, 曰攝提格.(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69.

을 인용하면서 “寅者, 引也, 肆建之義也.”⁷²⁾라 하였고 『淮南子』에서는 “寅, 蟻動生也.”⁷³⁾라 하였다. 『運氣論奧』에서는 추가적으로 津液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⁷⁴⁾ 陰이 아직 아래에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卯者, 日升之時也. 又卯, 茂也, 言二月陽氣盛而孳茂.

묘는 해가 위로 오르는 때이다. 또한 묘는 무성한 것이니 이월에 양기가 성하여 만물이 불어나고 무성한 것을 말한다.

『五行大義』에서 『淮南子』와 『三禮義宗』를 각각 인용하면서 “卯, 茂也. 茂然也.”⁷⁵⁾, “卯, 茂也, 陽氣至此, 物生滋茂.”⁷⁶⁾라고 하여 卯를 무성하다고 해석하였는데 『運氣論奧』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五行大義』에서는 “卯者, 冒也, 物生長大, 覆冒於地也.”⁷⁷⁾라고도 하여 만물이 성장하여 땅위를

뒤덮는다고 하였고 “卯名單闕, 單, 盡, 闕, 止也, 言陽氣推萬物而起, 陰氣盡止也.”⁷⁸⁾라 하여 陰氣가 이미 다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辰者, 陽已過半, 三月之時, 物盡震而長. 又謂辰言震也.

진은 양이 이미 절반을 지난 삼월의 때이니 만물이 다 떨어져서 자란다. 또한 진은 떨치는 것 자체를 말한다 고 한다.

『五行大義』에서 “辰者, 震也, 震動奮迅, 去其故體也.”⁷⁹⁾라 하여 옛것을 떨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三禮義宗』를 인용하여 “此月之時, 物盡震動而長.”⁸⁰⁾라 한 것도 이와 동일하다. 『運氣論奧』에서는 이에 덧붙여 陽이 이미 절반을 지난 때라고 하였다. 『五行大義』에서는 뒷부분에서 “辰名執徐, 執, 蟄也, 徐, 舒也, 言伏蟄之物, 皆散舒而出也.”⁸¹⁾라고 하여 숨어있던 物이 서서히 나오는 것이라 하였는데 위의

“李巡注爾雅云, 萬物承陽而起, 故曰攝提格. 格, 起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2. “格, 起. 言萬物承陽而起也.(淮南子·天文訓)”

72)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引達於寅.(漢書·律曆志)”

73)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33. “正月指寅, 十二月指醜, 一歲而匝, 終而復始. 指寅則萬物蟻蟄也.(淮南子·天文訓)”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寅言萬物始生蟻然也, 故曰寅.(史記·律書)”

74)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正月之辰, 謂之寅. 寅者, 津也, 謂生物之津塗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75)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33. “卯則茂然.(淮南子·天文訓)”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卯之爲言, 茂也, 言萬物茂也.(史記·律書)”

76)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卯者, 茂也, 言陽氣生而孳茂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77)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冒茹於卯.(漢書·律曆志)”

78)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在卯, 曰單闕.(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0. “李巡云, 言陽氣推萬物而起, 故曰單闕. 單, 盡, 闕, 止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2. “單, 盡, 闕, 止也. 陽氣推萬物而起, 陰氣盡止也.(淮南子·天文訓)”

79)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辰者, 言萬物之娠也.(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振美於辰.(漢書·律曆志)”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三月之辰, 名爲辰. 辰者, 震也, 謂時物盡震動而長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80)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辰者, 震也, 謂時物盡震動而長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81)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在辰, 曰執徐.(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314. “李巡云, 伏蟄之物皆散舒而出, 故曰執徐. 執, 蟄, 徐, 舒也.(史記·天官)”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2. “執, 蟄, 徐, 舒也. 伏蟄之物, 開散舒而出也.(淮南子·天文訓)”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巳者，四月正陽而無陰也，自子至巳，陽之位，陽於是當。又巳，起也，物畢盡而起。

사는 사월의 바른 양으로써 음이 없는 것이니 자부터 사에 이르기까지가 양의 자리로 양이 이에 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는 일어나는 것이니 만물이 마치기를 다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五行大義』에서는 “巳者，巳也，故體洗去，於是巳竟也。”⁸²⁾라 하여 巳字와 동일하게 보고 體가 씻겨나가 이미 끝난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한편 『三禮義宗』을 인용하여 “巳，起也，物至此時，皆畢盡而起。”⁸³⁾ 끝난 뒤에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運氣論奧』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또한 『五行大義』에서는 “巳名大荒落，荒，大也，言萬物熾盛而大出，落落而布散也。”⁸⁴⁾라 하여 만물이熾盛하여 커진 후에 흩어져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熾盛한 것은 陽이 극한 ‘陽於是當’과 유사하다.

午者，陽尚未屈，陰始生而爲主。又云午，長也，大也，物至五月，皆滿長大矣。

오는 양이 여전히 구부러지지 않은데 음이 비로소 생하여 주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오는 자라

고 커지는 것이라 하니 만물이 오월에 이르러 모두 그득해지고 자라서 커지는 것이다.

『五行大義』에서는 “午者，忤也，亦云萼也，仲夏之月，萬物盛大，枝柯萼布於午。”⁸⁵⁾라 하여 기운이 위로 거스르거나 만물의 가지와 꽃받침이 성대하게 펼쳐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淮南子』, 『三禮義宗』을 각각 인용하여 “午者，忤也。”⁸⁶⁾, “忤，長也，大也，明物皆長大也。”⁸⁷⁾라 하였고, 또한 “午名敦牂，淮南子云槐槍，敦，盛，牂，壯也，言萬物盛壯也。”⁸⁸⁾이라 하였는데 그 의미는 동일하다. 『運氣論奧』에서는 이와 달리 陰氣가 始生하여 주인이 된다고 하여 음의 역할을 같이 강조하고 있다⁸⁹⁾.

未，六月，木已重而成矣。又云未，味也，物成而有味，與辛同意。

미는 유월로 목이 이미 무거워져 이루어진다. 또한 미는 맛이 나는 것이라 하니 만물이 이루어지면 맛이 생기는 것으로 신과 더불어 의미가 같다.

『運氣論奧』에서는 字象에 따라 사물이 이미 무거워져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五行大義』에서 『三禮義宗』을 인용하여 “時物向成，皆有氣味。”⁹⁰⁾라 한 것

82)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巳者，言陽氣之已盡也。(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巳盛於巳。(漢書律曆志)”
83) 黃爽.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7,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85,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3).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p.180. “至此之時，物已長大。(三禮義宗)”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四月之辰，謂爲巳。巳者，起也，物至此時畢盡而起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84)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 在巳，曰大荒落。(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0. “姚察云，言萬物皆熾盛而大出，霍然落之，故云荒落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荒，大也。方萬物熾盛而大出，霍然落落，大布散。(淮南子·天文訓)”

85)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萼(萼)布於午。(漢書律曆志)”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五月之辰，謂爲午。午者，長也，大也，言物皆長大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86)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33.
87)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五月之辰，謂爲午。午者，長也，大也，言物皆長大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88)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 在午，曰敦牂。(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1. “孫炎注爾雅云，敦，盛也，牂，壯也，言萬物盛壯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敦牂，敦，盛，牂，壯也，焉萬物皆盛壯也。(淮南子·天文訓)”
89)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午者，陰陽交，故曰午。(史記律書)”

과 관련이 있다. 또한 『運氣論奧』에서 “未, 味也, 物成而有味.”이라 설명한 것은 『五行大義』에서 『淮南子』를 인용하여 “未, 味也.”⁹¹⁾라고 한 것과 동일하며 맛이 생기는辛의 작용과 의미가 같다고 하였다. 그밖에 『五行大義』에서는 “未者, 味也, 陰氣已長, 萬物稍衰, 體萎味也, 故曰萎味於未.”⁹²⁾라 하여 陰氣가 성해짐에 따라 쇠하여 어두워진다고 하였고, “未名協洽, 淮南子云協, 和也, 洽, 合也, 言陰欲化, 萬物和合也.”⁹³⁾라 하여 陰의 작용에 의하여 이때에 만물이 和合하게 된다고 하였다.

申者, 七月之辰, 申陽所爲而已⁹⁴⁾, 陰至於申則上下通而人始見, 白露葉落, 乃其候也, 可以述陰事以成之. 又云申, 身也, 言物體皆成.

신은 칠월의 진으로 신은 양이 일을 하다가 그치는 것이니 음이 신에 이르면 위아래가 통하여 사

람들이 비로소 보게 되니 맑고 찬이슬이 맺히고 낙엽이 지는 것이 곧 그 이후로 이때에 음사를 펴나가서 이를 수 있다. 또한 신은 몸이니 만물의 몸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運氣論奧』에서는 陰이 이에 이르러 이슬이 맺히고 낙엽이 지는 것으로 비유하였고 陰事가 진행되어 만물을 이룬다고 하여 陰의 작용을 강조하였다⁹⁵⁾. 만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五行大義』에서 『三禮義宗』을 인용하여 “申者, 身也, 物皆身體成就也.”⁹⁶⁾라 한 것과 동일하다. 또한 “申名涓灘, 淮南子云涓灘, 大修也, 言萬物皆修其精氣也.”⁹⁷⁾이라 하여 만물을 크게 닦아서 그 精氣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그밖에 “申者, 伸, 伸, 猶引也, 長也, 衰老引長.”⁹⁸⁾라 하여 物이 노쇠해져서 길게 늘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酉者, 日入之時, 乃陰正中八月也. 又云酉, 緝也, 萬物皆緝縮收斂.

유는 해가 기우는 때이니 이에 음이 바로 중심이 되는 팔월이다. 또한 유는 오그라드는 것이라 하니 만물이 모두 오그라들어 수렴된다.

『五行大義』에서 『三禮義宗』을 인용하여 “酉, 猶

90)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六月之辰, 謂之未. 未者, 味也, 言時萬物向成, 有滋味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는 이 문장을 “未者, 味也, 言萬物生成, 有滋味也.”로 인용하였다.

91)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45. “未, 味也…(…味作味).(淮南子天文訓)”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2. “衰於未, 未, 味也.(白虎通五行)”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未者, 言萬物皆成, 有滋味也.(史記律書)”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六月之辰, 謂之未. 未者, 味也, 言時萬物向成, 有滋味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는 이 문장을 “未者, 味也, 言萬物生成, 有滋味也.”로 인용하였다.

92)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味萎於未.(漢書律曆志)”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15. “味之爲言, 味也. 味者, 萬物老衰, 禁者, 萬物禁藏, 侏離者, 萬物微離地而生.(白虎通禮樂)”

93)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在末, 曰協洽.(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314. “李巡云, 陽氣欲化萬物, 故曰協洽. 協, 和, 洽, 合也.(史記天官)”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協, 和, 洽, 合也, 言陰欲化萬物和合.(淮南子天文訓)”

94) 而已: 『運氣論奧校注』에서는 앞 구와 분리하여 뒤의 ‘陰至於申’에 연결하였다.

95)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申者, 言陰用事, 申賊萬物, 故曰申.(史記律書)” 『運氣論奧』에서 말한 陰의 역할과는 그 의미가 상반된다.

96)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七月之辰, 謂爲申. 申者, 身也, 言時萬物身體皆成就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유사하게 인용하였다.

97)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在中, 曰涓灘.(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1. “孫炎注爾雅云, 涓灘, 萬物吐秀傾垂之貌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涓, 大, 灘, 修也, 言萬物皆修其精氣也.(淮南子天文訓)”

98) 杜臺卿. 玉燭寶典(新編叢書集成43).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p.352 “詩紀歷樞曰, 申者, 伸也.(宋均曰, 陽氣衰, 陰氣伸)(七月孟秋第七)” 『詩紀歷樞』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也, 猶倫之義也, 此時物皆縮小而成也.”⁹⁹⁾라 하여 酉의 때에 만물이 비슷하게 엮여져서 오그라들어 완성된다고 설명하였다. 『運氣論奧』도 대체로 이러한 의미를 따르고 있다. 이때 만물이 縮縮하는 것에 대해서 『五行大義』에서는 또한 “酉名作鄂, 淮南子云名作鄂, 作鄂, 零落也, 言萬物皆墮¹⁰⁰⁾落若也.”¹⁰¹⁾라 하여 놀라서 떨어진다고 하였고,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酉者, 老也, 亦云熟也, 萬物老極而成熟也.”¹⁰²⁾라 하여 늙음이 극에 다하면 성숙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運氣論奧』에서는 陰이 正中한다고 하였다.

九月戌, 陽未既也, 然不用事, 潛藏於戌土¹⁰³⁾中, 乃乾位成爲天門故也. 又云戌, 滅也, 萬物皆衰滅矣.

구월이 술이니 양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나 일을 하지 못하여 무토 중에 잠장되어 있는 것이니 이에 건이 술에 자리 잡아 천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술은 소멸하는 것이라 하니 만물이 모두 쇠하여 소멸한다.

戌이 쇠하여 소멸하는 것에 대하여 『五行大義』에서는 “戌者, 滅也, 殺也, 九月殺極, 物皆滅也.”¹⁰⁴⁾라

99)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八月之辰, 謂爲酉. 酉者, 緝也, 謂時物皆納(緝)縮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유사하게 인용하였다.

100) 墮 : 『五行大義校註』에서는 刊本에는 모두 ‘陟’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101)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 在酉, 曰作噩.(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2. “李巡云, 作鄂, 萬物皆落枝起之貌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作鄂, 零落也. 萬物皆降落.(淮南子天文訓)”

102)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酉者, 萬物之老也, 故曰酉.(史記律書)”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1. “西方者, 金也, 萬物成熟.(白虎通五行)”

103) 戌土 :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 『運氣論奧疏鈔』에는 모두 ‘戌土’로 되어 있으나 『懸吐注解素問式運氣論奧』의 해석에 따라 고쳤다.

104)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하였고 『三禮義宗』을 인용하여 역시 “此時物衰滅也.”¹⁰⁵⁾라 하였다. 이것을 『運氣論奧』에서는 陽이 더 이상 用事하지 못하여 戌土 중에 잠장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五行大義』에서 다시 “戌名掩闌茂, 掩, 大也, 置也¹⁰⁶⁾, 言萬物皆大置也.”¹⁰⁷⁾¹⁰⁸⁾라 하였다.

十月亥, 純陰也. 又亥, 劾也, 言陰氣劾殺萬物.

시월이 해이니 순음이다. 또한 해는 죄를 묻는 것이니 음기가 죄를 물어 만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五行大義』에서 『三禮義宗』을 인용하여 “亥, 劾也, 言陰氣劾殺萬物也.”¹⁰⁹⁾라 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亥가 純陰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五行大義』에서는 “亥者, 核也, 闕也, 十月閉藏, 萬物皆入核闕.”¹¹⁰⁾라 하여 기운이 깊숙이 잠장되어 간히

p.162. “戌者, 言萬物盡滅. 故曰戌.(史記律書)”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九月之辰, 謂爲戌. 戌者, 滅也, 謂時物皆衰滅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105)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九月之辰, 謂爲戌. 戌者, 滅也, 謂時物皆衰滅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106) 掩, 蔽也, 置也 : 『五行大義校註』에서는 刊本에는 모두 “掩, 蔽也, 茂, 冒也.”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107) 大置也 : 『五行大義校註』에서는 刊本에는 모두 ‘蔽冒也’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108)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 在戌, 曰闌茂.(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2. “李巡云, 言萬物皆蔽冒, 故曰闌茂.(闌, 蔽(也). (茂), 冒也.(史記曆書)”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p.53. “掩, 蔽, 茂, 冒也, 言萬物皆蔽冒.(淮南子天文訓)”

109) 현재 『黃氏逸書考』와 『玉函山房輯佚書』에 포함된 輯本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다.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320. “十月之辰, 謂爲亥. 亥者, 劾也, 言時陰氣劾殺萬物也.(晉書樂志)” 『六壬神定經』에서 이 문장을 “亥者, 劾也, 言此時陰陽劾殺萬物也.”로 인용하였다.

110)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2. “亥者, 該也. 言陽氣藏於下, 故該也.(史記律書)”

班固. 漢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748. “該關於亥.(漢書律曆志)”

는 것이라 하였고, “亥名大淵獻, 淵, 藏, 獻, 迎也, 言萬物終亥, 大小深藏窟伏, 以迎陽也.”¹¹¹⁾라 하여 깊이 잠복하여 陽이 오기를 기다린다고도 하였다.

Ⅲ. 考 察

우선 五行의 의미에 대한 『運氣論奧』와 『五行大義』의 해석 내용을 비교해 보면, 『運氣論奧』에서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주로 『春秋元命苞』, 『說文解字』를 인용하였고 일부 『白虎通』을 인용하기도 하여 劉溫舒가 이상의 서적들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春秋元命苞』는 前漢 말기에 만들어진 ‘春秋緯’의 하나로 망실되었던 것을 清代에 馬國翰, 黃奭 등이 輯錄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판본¹¹²⁾의 내용은 『五行大義』에서 인용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

또한 『運氣論奧』에서는 각 五行별 기본적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한 이후에 五行의 相生 관계에 대하여 덧붙이고 있다. 木의 경우에는 “水流趨東, 以生木也.”라 하여 水가 木을 生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火의 경우에는 “鑽木作火, 木所生也, 然火無正體, 體本木焉.”라 하여 木을 통하여 火가 생하는데 火는 실체가 없고 木은 실체가 있음을 대비하였고, 金의 경우에는 “披沙揀金, 土所生也.”라 하여 土를 상징하는 모래 속에서 金을 가려냈다고 하였고, 水의 경우에는 “水西而東, 金所生也.”이라 하여 水가 오히려 서쪽에서 출하였으므로 金에서 生하였다고 하였고, 土의 경우에는 “火所生也, 土或勝水.”라 하여 火生土 이외에 土克水를 같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運氣論奧』에서 五行의 相生 관계로 각 五行의 의미를 설명하려 한 것은 『運氣論奧』가 담고 있는 運氣學說 상 五行의 生克 관계가 핵심적인 기본 原理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相克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주로 相生을 위주로 설명한 것은 「論五行生死順逆」 편이 기후의 이상

상태나 인체의 질병 발생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五行의 기본적인 의미 설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運氣論奧』에서는 五行의 의미와 相生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陰陽論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木의 경우에는 “木上發而覆下”라고 하여 木器가 위로 升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下降하는 것을 같이 설명하였으며, 火의 경우에는 “出以應物, 盡而復入.”라 하여 火가 밖으로 나와서 外物에 應하다가 꺼져서 다시 들어가는 양면을 모두 말하고 있으며, 金의 경우에는 “生於土而別於土”라 하여 土에서부터 나왔으나 土의 속성을 버리고 선별되어 나왔음을 설명하였고, 水의 경우에는 “水流曲折, 順下而達.”라 하여 물의 흐름이 굽이굽이 순하게 내려가나 결국에는 중단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됨을 말하였으며 土에 대한 설명 가운데 “土或勝水, 水乃反一.”이라 하여 水는 土를 받더라도 하나로 合一하려는 성질이 있음을 말하였고, 土의 경우에는 “含吐萬物, 將生者出, 將死者歸, 爲萬物家.”라 하여 土가 萬物을 生하기도 하지만 죽을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역할도 하여 萬物의 큰 집이 됨을 설명하였다. 『五行大義』에서 조금 단편적으로 각 五行의 작용을 설명한 것에 비하여 후대에 저술된 『運氣論奧』에서는 五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運氣論奧』의 五行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木火金水土 각각에 自然의 質, 理, 形, 性, 義를 배속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木과 金이 각각 가지고 있는 質과 形의 관계를 살펴보면, 質은 사물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바탕을 말하는 것이며 形은 그 존재의 외부 윤곽과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木으로부터 물질적 형태의 바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金의 단계에 와서 그 윤곽과 외부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의미한다. 火와 水가 가지고 있는 理와 性의 관계를 살펴보면, 宋代 性理學에 의하면 性도 곧 理이지만 性이 理的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물 속에 내재된 속성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運氣論奧』에서 火가 正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理에 가까우며, 水는 실체를 가지면

111)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236. “大歲… 在亥, 曰大淵獻(爾雅釋天)”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p.1272. “孫炎云, 淵獻, 深也. 獻萬物於天, 深於藏蓋也.(史記曆書)”

112) 顧廷龍, 續修四庫全書(1208, 子部, 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675-713.

서도 사람의 仁性과 유사하게 自然의 順한 본성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性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土의 경우에는 木火金水처럼 서로 대비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단지 義라고만 하였는데 生과 死의 책임을 모두 담당하면서 우주의 마땅한 변화를 어김없이 만들어내는 주체라 할 수 있으므로 義를 배속한 것으로 보인다. 『運氣論奧』에서 이와 같은 배속을 한 배경에는 宋代 性理學의 성립 속에서 形質性理 등 사물의 특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당시에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의학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劉溫舒가 이러한 배속을 통하여 기계론적인 運氣理論의 설명이 아니라 義理論의 관점에서 五行을 설명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十干의 의미에 대한 『運氣論奧』와 『五行大義』의 해석 내용을 비교해 보면, 『運氣論奧』에서는 陰陽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점이 두드러진다. 甲乙의 경우에 鄭玄의 『禮記·月令』 注釋을 인용하면서도, 甲이 陽이 안에 있고 陰이 아직 길을 감싸고 있다고 표현하였고 乙은 양이 절반을 지났으나 아직 正方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五行大義』에서 단순히 봄의 열림을 강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丙丁의 경우에도 丙을 陰陽의 上下, 內外 분포로 설명하였으며 丁은 陽이 이에 강해져서 陰과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戊己의 경우에는 각각을 陽土와 陰土로 지칭하고 陽土인 戊는 萬物을 生伐하여 出入시키는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에 陰土인 己는 하는 일은 없으나 일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五行大義』의 鄭玄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萬物含秀者, 抑屈而起也.”라 하여 萬物이 빼어남을 머금었다가 억눌림을 뚫고 일어서는 己土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다. 庚辛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陽이 아래에 있고 陰이 위에 있으면서 陰이 陽을 간섭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壬癸의 경우에도 『五行大義』에서 “陰任於陽, 揆然萌芽於物也.”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陰이 陽 속에서 씨앗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五行의 生克 관계가 아니라 주로 陰陽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十干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五行에 대한 해석 내용과 마찬가지로 十干의 의미가 가진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한 것이다. 『五行大義』로부터 그대로 인용한 부분도 일부 이러한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다.

十干에 대한 『運氣論奧』의 특징적인 설명들의 출처를 살펴보면, 『禮記』에 대하여 鄭玄이 注釋을 가한 『禮記正義』가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六壬神定經』에서 『春秋元命苞』를 인용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十二支의 의미에 대한 『運氣論奧』와 『五行大義』의 해석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예외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설명의 앞부분에 陰陽의 관계를 통하여 의미를 기술하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五行大義』로부터 인용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寅에서 “陽已在上, 陰已在下, 人始見之時.”라 하여 陰陽의 상하 관계로 설명하였고, 巳에서는 “四月正陽而無陰也, 自子至巳, 陽之位, 陽於是當.”라 하여 4월에 이르러 陽氣가 일을 담당하게 됨을 말하였고, 戌에서는 “陽未既也, 然不用事, 潛藏於戌土中.”이라 하여 陽이 用事를 하지 못하고 戌土 속으로 들어가 버림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陰陽論의 설명들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午에서 “陽尚未屈, 陰始生而為主.”라 하여 陰氣가 始生하면서 이미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다고 하였고, 申에서 “申陽所爲而已, 陰至於申則上下通而人始見, 白露葉落, 乃其候也, 可以述陰事以成之.”라 하여 上下의 氣가 交通하여 陰氣의 징후가 나타나서 陰事를 펼쳐 萬物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은 보다 陰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五行大義』의 해석과 다른 점이다.

『運氣論奧』에서 十干을 설명한 문장들의 출처를 살펴보면, 十二支에 대한 설명 중 뒤 부분에서 『三禮義宗』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현재 『三禮義宗』의 輯本에는 해당 문장이 남아있지 않고 『六壬神定經』에 인용된 『晉書樂志』의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運氣論奧』에 나오는 干支에 대한 설명들은 전체적으로 『春秋元命苞』 등의 緯書類와 그것을 담고 있는 『六壬神定經』¹¹³⁾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3) 北宋 仁宗(1010-1063) 때의 인물인 楊維德이 지은 책으로 본명은 『景佑六壬神定經』이다. 六壬法은 길흉을 점치는 術數의 하나로서 遁甲, 太乙과 함께 三式이라 부른다. 楊維德의 또 다른 저서로 『遁甲符應經』이 있다.

다. 『運氣論奧』와 『五行大義』 가운데 緯書類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運氣論奧』와 동시대에 저작된 『六壬神定經』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運氣論奧』의 「論五行生死順逆」, 「論十干」, 「論十二支」 등에 나오는 五行과 干支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많은데 주로 『春秋元命苞』, 『說文解字』, 『禮記·月令』에 대한 鄭玄의 注釋, 『三禮義宗』 등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運氣論奧』는 五行相生 관계, 陰陽의 상호 관계 등을 통하여 五行과 干支의 의미에 대하여 덧붙여 설명을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五行大義』의 간행 이후 약 500년이 지나는데 동안 陰陽五行論을 활용한 五行과 干支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보다 풍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運氣學說에 정통하였던 劉溫舒만의 독특한 관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五行을 각각 質, 理, 形, 性, 義로 배속한 것과 陰陽의 양면적 특성을 함께 종합하여 설명한 것 등은 사물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IV. 結 論

본 연구를 통하여 宋代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 중에서 五行 및 干支의 의미에 대한 해석 부분인 「論五行生死順逆」, 「論十干」, 「論十二支」 등 篇의 내용을 隋代 蕭吉이 지은 『五行大義』의 「釋五行名」, 「論支干名」 등 篇의 관련 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素問入式運氣論奧』는 서두에서 五行 및 十干, 十二支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五行大義』에 실린 여러 서적들의 내용을 다수 인용하였는데, 五行의 기본적 의미에 대해서는 주로 『春秋元命苞』, 『說文解字』 등을 인용하였고, 十干에 대해서는 『禮記·月令』에 대한 鄭玄의 注釋, 十二支에 대해서는 『三禮義宗』 등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五行大義』에 실린 내용들이 『素問入式運氣論奧』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는 『五行大義』에 비하여 五行의 相生相克 理論이나 陰陽論을 이용하여 五行 및 十干, 十二支의 의미를 많이 설명하였는데, 五行의 경우에는 주로 相生 관계를 통하여 각각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陰陽論의 관점은, 十干과 十二支에서는 陰陽의 上下, 內外, 多少, 消長 관계 등으로 설명하였고 五行의 경우에는 각각의 양면적 특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의미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楊維德의 『六壬神定經』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素問入式運氣論奧』의 五行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는 독특하게 木, 火, 金, 水, 土 각각에 대해 自然의 質, 理, 形, 性, 義를 배속하여 설명하였는데, 形과 質, 理와 性의 상대적 특성과 전체를 총괄하는 義의 특성을 통하여 五行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宋代 性理學의 성립 등 萬物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의학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劉溫舒가 義理論의 관점에서 五行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4. 『素問入式運氣論奧』가 五行 및 干支의 해석에 있어서 『五行大義』보다 五行의 生克理論과 陰陽論의 관점을 통하여 설명하였던 것은 약 500년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陰陽五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劉溫舒가 탐구한 運氣學 이론의 발전도 그러한 이해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5. 본 연구는 전문적인 분야인 運氣學說뿐만 아니라 한의학 전반의 근간이 되는 五行學說과 당시 천문, 역법 및 우주론의 근간이 되는 十干, 十二支에 대하여 劉溫舒를 포함한 당시의 醫家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며, 五行學說 자체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Gu TL. Xuxiusikuquanshu(1208).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2002.
顧廷龍. 續修四庫全書(1208, 子部, 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2. Gao Y. Huainanzi. Beijing. Chung Hwa Book Co. 2008.
高誘注. 淮南子(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0.
3. Du TQ. Yuzhubaodian. Taipei. Xinwenfeng Press. 2008.
杜臺卿. 玉燭寶典(新編叢書集成43).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4. Ma GH. Yuhanshanfangjiyishu(3). Jiangsu. Jiangsuguanglinggujikeyinshe. 1884.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3).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5. Ma GH. Yuhanshanfangjiyishu(5). Jiangsu. Jiangsuguanglinggujikeyinshe. 1884.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5). 江蘇.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884.
6. Ban G. Baihutongyi.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1992.
班固. 白虎通義(外十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7. Si MQ. Shiji(ershiwushi1).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1983.
司馬遷. 史記(二十五史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8. Si MQ. Shiji(Xinjiaoshijisanjiasanzhu). Taipei. Shijieshuju. 1983.
司馬遷. 新校史記三家注(2). 臺北. 世界書局. 1983.
9. Fang XL. Jinshu(ershiwushi2).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1986.
房玄齡外. 晉書(二十五史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0. Wang NS. Guangyashuzheng(1). Shandong. Shandongyuyishushe. 1991.
王念孫. 廣雅疏證(1). 山東. 山東禹誼書社. 1991.
11. Liu A. Huainanzi.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1989.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12. Liu X, Bi Y, Wang XQ. Shimingshuzhengbu. Beijing. Chung Hua Book. Co. 2008.
劉熙著, 畢沅疏證, 王先謙補. 釋名疏證補.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2008.
13. Yoon CY, Park SY. Hyeontojuhaesomunipsikungirono. Daejeon.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7.
윤창열, 박상영.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4. Li F. Taipingyilan.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88.
李昉. 太平御覽(文淵閣四庫全書893). 臺北. 商務印書館. 1988.
15. Li SK, Li Z. Shiziyizhu. Harbin. Heilongjiang People Publishing House. 2002.
李守奎, 李軼. 尸子譯注.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16. Yang WD. Jingyouliurenshendingjing. Xinwenfeng Press. 2008.
楊維德. 景佑六壬神定經(叢書集成新編24).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8.
17. anonymous authorship. Shangshudachuan.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88.
著者未詳. 尚書大傳(文淵閣四庫全書68, 經部, 書類). 臺北. 商務印書館. 1988.
18. anonymous authorship. Liji.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e. 1975.
著者未詳. 禮記.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1975.
19. Zhang LP. Suwenyunqilunaoxiaozhu. Beijing. Xueyuanchubanshe. 2008.
張立平. 素問運氣論奧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20. Zheng X. Lijizhengyi.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000.
鄭玄. 禮記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1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1. Nakamura SH. The Basic Study on Wuxingdayi. Tokyo. Meitoku shuppan-sha. 1976.
中村璋八. 五行大義の基礎的研究. 東京. 明德出版社. 1976.
22. Nakamura SH. The Proofreading of Wuxingdayi. Tokyo. Kyukoshoin. 1984.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東京. 汲古書院. 1984.
23. Huang S. Huangshiyishukao.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2002.
黃奭.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8,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24. Huang S. Huangshiyishukao.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2002.
黃奭. 黃氏逸書考(續修四庫全書1207, 子部雜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25. Xu S, Duan YC. Shuowenjieizhu(I). Nanjing. Jiangsu Phoenix House.Ltd. 2007.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7.
26. Xu S, Duan YC. Shuowenjieizhu(II). Nanjing. Jiangsu Phoenix House.Ltd. 2007.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下). 南京. 鳳凰出版社. 2007.
27. Hu QG, Fang HH. Eryayizhu. Shanghai.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2004.
胡奇光, 方環海. 爾雅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28. Su Y. Liu Wenshu and Suwenrushiyunqilunao. Jilin Journal of TCM. 2014. 34(1).
蘇穎. 劉溫舒與素問入式運氣論奧. 吉林中醫藥. 2014. 34(1).
29. Yang YJ. The contribution of Liu Wenshu to Yunqixue Theory. Zhejiang Journal of TCM. 1994. 10.
楊毓雋. 劉溫舒對運氣學說的貢獻. 浙江中醫雜誌. 1994. 10.
30. Quan H. Suji and Wuxingdayi. Shilin. 1999. 2.
錢杭. 蕭吉與五行大義. 史林. 1999. 2.